

중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한다

가이드 자질 향상 대책 마련…무자격자 단속 강화

중국인 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는 6450여명으로, 이중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이다. 문체부는 중국어 가이드 중 일부가 엉터리 설명과 저질상품 강매 등으로 한국 여행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무자격 가이드 기용을 철저히 단속해 3회 적발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일부 가이드의 부실하거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역사왜곡 행위를 막기 위해 수시로 암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매년 가이드 고용과 교육 훈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와 우수여행사 지정 인센티브 지원에 연계한다.

가이드 교육체계를 기존 60시간의 실무교육에서 한국사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68시간으로 늘린다. 고부가가치 창출형 프리미엄 중국어 가이드를 연 30명에서 100명 규모로 양성하고, 경복궁·민속박물관 등 주요 방문지의 상주 전문가이드를 현재 12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자질 향상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자격증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협의회'를 만들어 수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능력 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을 개발한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관광객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6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kuid

삼양라면, 나트륨 함량 '최다'

소비자원 12개 제품 조사…최대 1.5배 차이

국내 시판되는 라면 중 삼양라면의 소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봉지라면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 나트륨 함량이 1봉지 당 1350~2069mg 수준으로 제품별로 최대 1.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제품별로는 삼양라면이 2069mg(개선품 1840mg)으로 가장 높았고, 신라면 1895mg(개선품 1790mg), 안성탕면 1843mg, 꼬꼬면 1770mg, 무파마탕면 1737mg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전체 평균치(1729mg)보다 높았다. 삼양라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소기준치(2000mg)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의 경우 실제 나트륨 함량이 포장지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나가사끼함뽕(1350mg)과 스낵면 쇠고기맛(1582mg)이었다. 양형모 기자

렉서스 'NX 300h' 프리미엄 멤버십 접수



렉서스가 프리미엄 콤팩트 크로스오버 SUV 'NX 300h(사진)' 출시를 기념해 신차 출고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중고차 고객 등 전 렉서스 고객들을 대

상으로 하는 토털 고객 케어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렉서스는 11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고객 케어 프로그램인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을 개시하기로 하고 10월부터 렉서스 고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차량관리, 쇼핑, 골프&스파, 라이프스타일, 클래식&이벤트, 의료, 여행, 호텔&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렉서스 전시장에서 타이어 구매 시 1년간 타이어를 보관해 주는 '타이어 보관 서비스', 전국 제휴 골프장 그린 피 할인(최대 20%), 호텔객실 할인(최대 40%), 다양한 고객 초청행사 등도 마련된다.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으로부터 3년이며, 3년 내 차량을 매각해도 만기일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The-K호텔 '와인 페어 레드 어텀' 행사

The-K호텔 서울(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이 가을맞이 '와인 페어 레드 어텀(Wine Fair Red Autumn) 2014'을 연다. 기간은 18일부터 이틀간이며, The-K호텔서울 분수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12개의 대표 수입사들이 추천한 500여종의 우수 와인이 선보인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와인부터 부피고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의 시음행사도 진행된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퍼스원 10, 세나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행사 당일 구매한 와인은 호텔 내 모든 레스토랑에서 코르키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5만원 이상 와인 구매고객에게는 코너별로 와인글라스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된다. 또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분수광장 내에서는 4인조 재즈밴드의 감미로운 공연이 열린다. 와인페어 입장권 가격은 1만5000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hek-hote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철 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r

가을철 안전산행 '4·3·3 법칙' 기억하세요

고어텍스® 제안 안전산행 가이드

단풍의 계절 가을이 깊어간다. 가을이면 평소 산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을 찾게 된다. 하지만 산행 안전에 대한 지식 없이 등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을철은 짙은 안개와 어두운 주변 환경, 높아지는 일교차로 인해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5년 간 국립공원에서 산악 안전사고로 1740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669명(38.4%)이 9~11월인 가을철에 사고를 당했다. 고어텍스® 마스터클라이머로 활동 중인 산악인 손용식 강사는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증가하지만 일교차가 커진 날씨로 산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산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라며 "몸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등산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쾌적함을 유지시키고 조난 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을 갖춘 기능성 소재의 등산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어코리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일 설악산에서 개최한 안전산행캠페인에서 등산객들이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고어코리아

등산 40% 하산 30% 여유 체력 30% 안배 1자 걸음으로 올때 체력 소비 최소화 일교차 큰 산에선 체온유지 각별히 신경 기능성 소재 등산복이 안전산행 도우미

고어코리아, 설악산 등서 '안전 캠페인'

① 자신에게 맞는 코스 선택과 준비 운동 필수

손용식 강사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산행의 첫 단계는 함께 가는 동료들의 체력과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상까지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상 산행 소요시간과 코스의 난이도, 식수지점 등을 미리 파악하면 안전한 산행에 큰 도움이 된다. 코스 선택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② 효율적인 체력 분배를 위한 '4·3·3 법칙'

전문 등산가들은 자신들만의 스마트한 등산 노하우를 지키며 일관된 호흡과 발걸음으로 여유롭고 꾸준하게 산을 오른다. 몸의 에너지를 절약하며 소모하는 '4·3·3 법칙'이 비결이다. 올라갈 때 40%, 내려올 때 30%를 쓰고, 하산 후에도 30%가 남아 있도록 체력을 안배하는 것이다.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저체온증 때문이다. 체온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비 체력 30%를 비축하는 것이다.

③ 산에 올 때는 호랑이처럼 걸어라

'4:3:3 법칙'을 완성하기 위한 보행기술로는 4가지 스텝이 있다. 출발 직후에는 정상 속도의 2분의 1 속도로 걸어서 위급업을 대신한다. 이후 점차 속력을 내면서 힘을 적게 사용하도록 한다. 산에 올 때는 호랑이처럼 걷는 동작인 '타이거 스텝(Tiger Step)'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이는 11자가 아니라 1자 걸음으로 걷도록 해 무게 중심의 이동 라인을 직선화하고 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보행법이다. 호흡곤란, 두통 등의 고통을 겪는 시점에 도달하는 경우, 한 번에 오래 쉬는 것보다 짧은 휴식을 자주 취하는 것이 낫다.

④ 쾌적한 산행, 조난 시 체온 유지 시켜줄 기능성 소재 선택

고어텍스®의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는 김도원 부장은 "등산복은 등산 시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며 체온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비로 소재의 선택은 등산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내구성 있는 방수, 방풍, 투습성을 갖춘 등산복은 급격한 체온 저하를 막고 쾌적함을 유지시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돕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기능성 등산복 소재는 1976년 최초로 상용화되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고어텍스®다. 고어텍스®는 제곱인치당 수십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뛰어나며 번덕스런 날씨에도 급격한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2의 피부' 역할을 한다. 고어텍스®의 핵심기술인 '멤브레인'의 미세구멍은 수증기 분자보다 700배 크고 물방울보

다는 2만 배 작다. 이런 원리 때문에 재킷 안쪽에서 발생하는 땀과 열기는 배출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분은 효과적으로 막는다.

●올해 4회째 맞는 고어코리아 '안전산행 캠페인'

산행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산행 캠페인이 설악산과 북한산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바로 고어코리아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2011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고어텍스® 안전산행 캠페인'이다. 초보는 물론 프로 등반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지난 3일부터 6주에 걸쳐 설악산, 북한산 도봉분소, 북한산 북한산성분소 등 대표적인 산행지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안전산행 서약서에 서명을 한 탐방객에게 산행 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와 경품을 증정한다. 전문 강사인 고어텍스® 마스터클라이머가 진행하는 안전산행을 위한 올바른 산행 방법 강의도 인기도. 이밖에 OX 퀴즈 이벤트, 고어텍스® 기능성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열린다.

앞서 9월18일부터 고어 코리아는 고어텍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프라인 행사와 같은 교육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후 인증샷을 찍어 SNS를 통해 공유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안전산행 교육을 위해 고어텍스® 마스터클라이머와 함께 하는 1:1 안전산행 가이드 영상도 준비되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독도에 올려퍼진 '지혜아리랑'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한글날 연주
아리랑 전통가락 현대적으로 재해석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11월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독주회 '자화상'을 개최한다. 그녀는 2011년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즌개막 독주회를 열었으며, 2015년 이탈리아 국제음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다. 유니버설 블랙데카에서 발매된 '바로크 인 라' 음반이 골든디스크를 달성했다. 2013년에는 세계적인 명사들의 강연 프로그램인 TED 토크에서 한국대표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박지혜는 최근 독도를 찾아 세계 최초로 바이올린을 연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9일 88번째 한글날을 맞아 독도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을 알리는 아리랑을 연주했다. 제7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에 맞춰 독도를 방문한 그녀는 세계 3대 명기 중 하나로 꼽히는 1735년 산 파르네리 바이올린으로 자신이 직접 편곡한 '지혜아리랑'을 연주했다. '지혜아리랑'은 아리랑의 전통가락을 현대음악으로 재해석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된 곡이다. 전통가락의 애절함,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아리랑의 한, 풍년을 상징하며 장엄하게 이어지는 선율 등 명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감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9일 한글날을 맞아 독도 정상에서 자신이 직접 편곡한 '지혜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박지혜

박지혜는 "독일에서 태어나 음악을 배웠지만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한국의 정서와 영혼이 스민 고유의 노래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편곡했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KT&G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 50% 증가

KT&G의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G의 잠정실적 집계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수출담배 판매량은 87억개비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올해 누적으로도 49%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9% 증가, 아시아태평양·미주 등 신규시장에서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야크, 스카이다이빙팀 '루키' 후원

히말라얀 오리지널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14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스카이다이빙국가대표팀 '루키(LUEKY)'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블랙야크는 향후 2년간 선수들의 활동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